

“지혜는 누구에게나...분별 벗어날 때 보여”

正見

길상사 일요 초청법문

대효 스님(안성 활인선원장)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지어낸다.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좋고 싫음' 등.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객(主客)의 대립, 상대적 차별심, 그리고 무엇인가를 안다는 '분별의식'에서 벗어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는 안성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은 6월 23일 서울 길상사에서 초청 법문을 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지혜는 있다. 그러나 ‘나’를 바로보고 ‘안다’ ‘모른다’를 넘어야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배현진 수습기자**

나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싶습니까?

부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모를 보고 부처를 보지 말라, 소리를 듣고 부처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처님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가치를 따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하면 밥이 나오니까, 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법회에 나오면 밥이 나오니까, 술이 나오니까.

아마 이 말 속에는 밥과 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밥과 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잠시 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을 발효시키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술지게미’라고 하죠. 우린 무엇을 먹습니까. ‘술지게미’와 ‘술’ 중에 서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술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잘못 보면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술을 선택하지 않고 찌꺼기를 선택하겠죠. 여러분은 술을 선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찌꺼기를 선택하는 쪽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술을 선택하는 쪽을 술파, 찌꺼기를 선택하는 쪽을 찌꺼기파라고 합니다.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처님을 음성으로 들으면 ‘찌꺼기파’일 것입니다. 우리는 ‘술파’로 가야합니다. 여러분은 술파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술파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찌꺼기 파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중요하니까. 한국에서는 불교의 가장 뛰어난 수행으로 참선을 손에 꼽습니다. 한국의 중심종단인 조계종은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선종(禪宗)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참선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최상승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선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안다면 찌꺼기 파에서 술파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불자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을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나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혹은 ‘이

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불교는 나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났다’란 생각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얼굴을 가장 많이 바꾼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갖추어지면 스스로를 바꿀 필요도 못 느끼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신 자신에게 혹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껏 기도를 계속 해오셨을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보게 해 달라고 빌 수는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게 해

지혜는 자신을 바로 보는데서 출발

참선 꾸준히 하면 찾을 수 있어

지혜는 행복할 수 있는 길 알려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만족 유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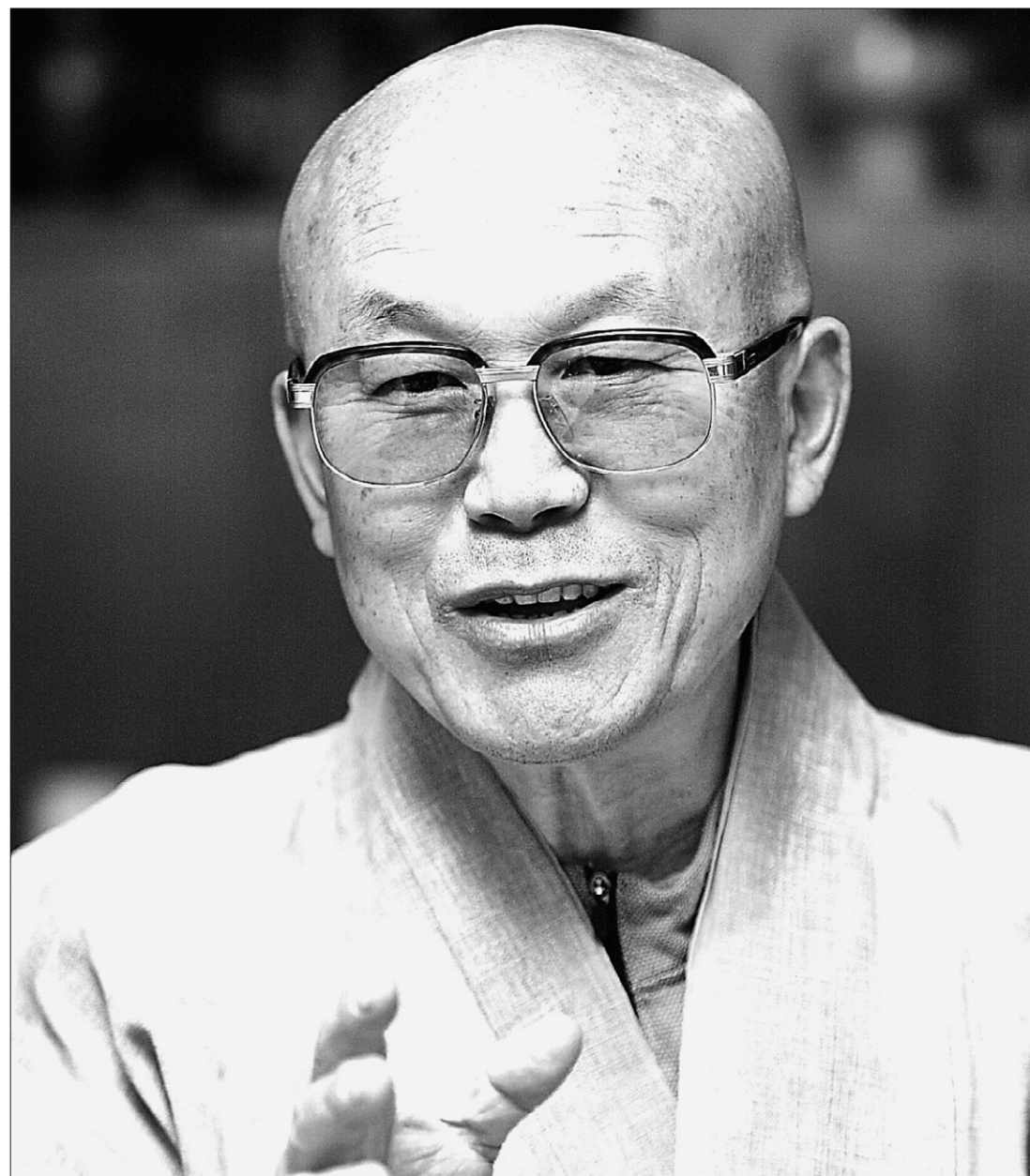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삶을 바꿀 수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을 누린다는 것은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법회에서 ‘보는 것’에 대해 귀에 따가워 듣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 수 없음”이란 마음을 뛰어넘는 자리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불심천자(佛心天子)라 일컬어지는 황제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짐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것, 이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무엇이냐”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뭐라 대답할 줄 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그 말뜻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전, 당시 양무제는 재정이 기울정도로 사찰을 세우고 도제양성을 하면서 불교에다 국가제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이렇게 많은 공덕을 베풀었는데 그 공덕이 어떻습니까?”라고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대효 스님은 ... 1968년 문경 김용사에서 득도했다. 스님은 김홍사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76년 '선수련회'를 열기 시작한 대효 스님은 제주 원명선원에서 30여 년간 재가불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후 2008년 안성시 죽산면에 활인선원을 개원해 선회 수련회, 단기출가 등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공덕을 베풀었다는 것, 여기에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베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공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십시오. 30~40년 같이 사니까 속된 말로 창자 속까지 모든 것이 다 보이네요. 이게 좋게 보인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좋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양무제는 “짐이 누구냐”하고 물었고, 달마대사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는데, 달마대사는 지혜가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알 수 없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말한 ‘알 수 없음’은 ‘안다’ ‘모른다’의 상대성이 아니라 마음을 뛰어 넘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무제의 공덕과 같습니다. 정성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신랑이 월급날이 되니 월급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너무 얇았습니다. 그럴 때면 매일 처리는 밥상도 처리기 싫어지고 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에도 변화가 옵니다. 밥상을 처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한테 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왜냐. 나는 그 사람에게 바친 것이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정성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자기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무엇에 좌우되느냐. 부처님에 좌우된다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신에 좌우된다고 해서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보는 데 좌우될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니다. 자기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무엇에 좌우되느냐. 부처님에 좌우된다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신에 좌우된다고 해서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보는 데 좌우될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에 좌우되기 때문입니까. 빌딩의 소유 유무 때문입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 옆 사람이 더 높은 것을 가졌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살률이 오늘날 같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이혼율이 지금보다 높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홍교 (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